

스스로 삶을 그려갈 수 있는 교육현장의 모습은

부산청년 정서원

□ 들어가며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다. 교육현장에서 산업현장으로의 오랜 이행기간을 겪어내는 것을 넘어, 상시적 이행기를 겪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직을 준비하는 경우,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교육-진로의 문제는 더 이상 직업훈련-취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 대학 중심의 교육정책 설계에 대한 재검토

도시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사회는 학교이다.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선생, 학생이라는 단편적 관계 속에 정규교육과정을 따라 최소 12년의 청소년 시기를 보낸다. 이후에는 대학 진학 혹은 취·창업 하게된다. 대개 인문계고는 대학진학, 특성화고는 취업연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취·창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의 학교는 취·창업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통로로 존재하고 있다.

실제 청년들에게 대학은 어떻게 인식되어 있을까? 학위 이상의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지식공유체계는 빠르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대면 교육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 이후 청년들이 실제 사회 현장에서 겪는 실체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고민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전히 지역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의 ‘연계, 협력’에만 집중되어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목적에 둔 연계·협력인지, 각 기관·산업체의 성과를 위한 연계·협력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 현실은 변했는데 교육현장은 왜 그대로인지, 코로나19시대에 대학을 먹여살린건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중심에 선 이들이, 자신 스스로를 다시 들여 봐야한다 생각한다.

□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할까?

‘대학교육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답’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취·창업 육성기관이 되어버린 대학.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배움의 의미 자체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일자리를 얻어내기 위함인지, 일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인지’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거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자리만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경로, 일자리가 갖춘 조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2019년 청년허브에서 진행한 대학 비진학 청년 현황 및 심층 면접조사에 따르면 ‘취업 이후 노동현장에서의 경험에 있어, 자격증, 학교에서의 전공 교과 수업보다는 동아리 혹은 특정 취업반 운영 속에서 이뤄진 자율학습이 오히려 더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졸자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로 기존의 관성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내고,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다.

둘째,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최적의 학습경로가 될 것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나고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신산업 분야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능력을 갖춘 인재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능력을 갖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개개인이 사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를 배웠다. 모두가 공인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 직업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표준화 되면서 개개인의 정보력, 학습력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었기에 더더욱 교육의 방향이 중요해졌다.

셋째, 그렇기에 교육현장 주체들은 사회의 수많은 주체들과 교류해야한다. 교육현장에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일단 만나기 시작해야한다. 학교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야하고, 기존의 연결·협력 체계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 연결은 교수, 선생, 청년매니저 등 현장주체로부터 이루어진다. 교육현장에서 이들이 청년 개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결·협력, 일 경험, 사회활동 경험이라 불리었던 것들의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한다. 실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현장이 어떻게 가닿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한다.

□ 마지막으로

“교육(教育)”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함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도록 규격화되고 균일화된 현장에서 교육받아왔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바꿔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낼 용기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실화할 길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절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한다는 말이 아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부터 스스로 배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연결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지지해주는 곳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교육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주체는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자주, 밀도 있게 들여다 봐야한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넘어서 복지, 문화, 참여, 권리 전 분야에 걸친 다각도의 논의와 협업의 장이 필요함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이러한 논의가 발전되는 과정 속에 청년이 스스로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환경,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